<토론:서울시 장애여성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유지에 관한 연구,2015>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나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들어가며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실행된 경우는 드뭅니다. '장애인'이라는 집단적 정책 내에 수용되어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여성' 정책 속에서는 아예 구호가 아닌 여전히 구체적 실천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사회지표 속에 장애여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해야 대안을 실효성있게 만들 근거가 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연구가 이러한 요구에 닿아서 장애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이유로는 성인지/장애인지적 관점 도입과 장애청소녀 진로 탐색 과정 조기 도입 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활성화 방안에 평소에 마음에 자리만 하고 있던 생각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담겨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장애여성의 노동에 대한 다른 연구[1)]나 담론들을 살펴보면,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들은 장애로 인해, 일이 힘들고 어려움, 이동, 몸의 조건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들이 가장 큰 이유인 '장애로 인해'에 포함되는 것들이어서 연구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들이었습니다. 하나로 귀결하면 "몸"-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몸과 관계에 대한 자신 없음이 개인적 이유이자 사회적 이유입니다. 사회적 원인인 환경-물리적, 대인적인 모든 요소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변화로 "매번 같은 말 해도 변하는 게 없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방안에 덧붙이고 싶은 것들.

1. 사회서비스제도가 노동할 기회, 유지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로 기능해야 함.

---

1) <여성장애인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여성팀 토론 기록 자료, 2005.
<사회관계 속에서 지체장애여성의 위치성을 협상하는 행위성에 대한 연구>, 이호선,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2011. 등

-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필요성을 반감시키고 있음.
- 수입이 있는 만큼 최저생계비를 삭감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취업과 자기계발에 대한 의욕과 실행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요인이 됨.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또한 추가 신청의 사유로서 취업 모색 등이 인정되고 지원되어야 함.
-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추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노동시장에 진입,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의 부정적 태도가 바뀌어야 함.

- 장애여성에게 붙어다니는 편견의 요구의 말들 : “뭐하러 돌아나니는가”, “사무실에서 복사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는가”, “거래처 접대나 출장을 다닐 수 있겠는가”, “마음이 불편해서 옆에서 어떻게 같이 일하려고 하겠어”, “직장생활이라는 게 자기 할 일만 딱딱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어디 그런가”, “여자가 직장을 다니려면 옷차림부터 단정해야 하는데” 등

- 장애여성의 다양한 특징을 지닌 몸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맥락에 놓여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대안 행위들이 연구, 실행되어야 함.

3. 고용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혹은 공단 내에 자조,지지 파트너 프로그램(Community Partners Program)을 만들어서 불리한 계약조건, 고충 등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장애여성이 자신의 삶의 육체적, 지식적 주체자로서 인식하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함.